

2015.01.27.PM7 <다시 봄> 11차 회의 @총여실

참석:
불참:
지각:
속기: 최영 - 정인 - 예지 - 건호 - 정훈 - 미래

집행위원장	예지
재무국	지영, 미래
미디어홍보국	정인, 건호, 정훈, 미래
국제협력국	정훈
생활복지국	지영
정책국	예지, 건호
(월)여성신문	지영

0. 생활나눔 & 제코

1월도 벌써 끝나갑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 연말준 반갑습니다!
우리 2월에 댈까요?

1. 활동 보고 및 상황 공유

1월 19일(월)

-LGBT 인권보장 기획 잡어를 확인했습니다.
-최장이 5차 중순위에 참여했습니다.

1월 20일(화)

-새내기 맞이 기획단 2차 집모에서 회장단이 성인지 교육 진행되었습니다.
-9차 집행부 회의 진행되었습니다.

1월 21일(수)

-총여실과 겨울방학 세미나 나라나리 연결고리 3주차 '상록역'을 진행되었습니다.

1월 22일(목)

-10차 집행부 회의 진행되었습니다.
-최장인과 집행부가 확대간부수련회를 갔습니다.
-확대간부수련회에서 성인지교육 진행했습니다.

1월 23일(금)

-확대간부수련회 승차와 문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습니다.

1월 27일(월)

-집행부 연립 진행했습니다.
-6차 중순위에 최장이 참여했습니다.

1월 28일(화)

-확간수 상록역 사건 관련 미팅 진행했습니다.
-대학생 여성주의 모임 연대(가)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고려대, 성희대, 한국외대, 서강대 등에서 참여했습니다.

2. 중순위 안전 공유

2015.01.12. 4차 중순위 안전 공유	
논의 안전	1. 2015 확대간부수련회 피드백 [첨부자료#1] -1월 22-24일 2차 3일 간 강원도 속초에서 확대간부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확대간부수련회에 대한 심원적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위원회 자체 피드백을 첨부자료에 첨부해두었습니다.
	2. 2015 달 겨울방학 기획사업 지원 신청 [첨부자료#2] -연세대학교 학생 자치단체 <다름에서 알아가는 삶, 달>에서 2015 겨울방학 기획사업(강연회, 캠프)에 대한 특별공동예산 명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첨부자료에 첨부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신입생 OT 장에 학우 포함과 자리 조정 관련 논의 [첨부자료#3] - 지난 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총학생회에 신입생 중 장애인 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단위 대표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총학생회 OT와 경우 승계가 있는 대강당 구조다라 장애학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첨부자료에 총학생회 OT 단과대별 자리 배치를 첨부해두었습니다.
	4. 2015 등록금 책정 결과 보고 및 논의 - 2015 등록금심의회위원회가 등록금등록금 0.2% 인하로 마쳤습니다. 등심위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등심위원, 중순위원, 등록금 심의단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2015 등록금심의회위원회 진행상황에 대해 최종 결과를 보고하고 피드백 해봅시다.
	5. 연세대학교 농민학생연대활동 신입생 OT 말제 요청 [첨부자료#4] - 올해도 봄, 여름, 가을에 전라북도 익산으로 농민학생연대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농민학생연대활동의 취미와 가치를 신입생들에게 OT를 통해 알릴 수 있도록 단과대학 학생회와 협조를 농민학생연대활동 추진위원회에서 부탁드립니다.
	6.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말제 [첨부자료#5]
기타 입견	1. 신입생 OT 도시락 개수 및 주류, 안주 신청 관련 공지
전체 및 공지 사항	

3. 방학 중 제실 시간 (12/09-2/27)

생략

4. 살림살이

(1) 친촌 총여실

- 가구 등의 비용 구매는 거의 불가능
- 컴퓨터는 1대만 지원 가능

(2) 국한 총여실

5. 사일 및 논의 안전

1. 국제협력국

(1) RA 성인지교육

[보고] 1월 27일 화요일 정기 회의 피드백 이후 RC 교육원에 개입 인증 예정

2. 미디어홍보국

(1) 가이드북

[보고] 형태, 컨셉 확정, 컨텐츠 구성 중, 빠른 스펙팅 필요.

[논의]

- 성평등자치과와 함께 여부
- 컴퓨터로 홍보 넣는 게 어떨까요?(제프나카, 앨리스 등 다른 단체도?)

(2) 역할분담

(3) 다시 볼 홈페이지 제작 [필수자료]

3. 생활복지국

4. 정책국

(1) LGBT 인권포럼

학생처에서 공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인권대학에 협동과정 이름으로 직접 공문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확안>

2015 LGBT 인권포럼 "우리는 한민대!"

일정 : 2015년 3월 21~22일

장소 : 인권대학

주최 : 인권대학 교 대학원 문화학협동과정, 인권대학 교 20대 총학생회 <다시 봄>, 성소수자차별 반대 추진위원회

대관사건 : andi+pedi

주요내용 : 2015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Transsexual, Intersex, ...) 성소수자 인권포럼은 연구-커뮤니티 그리고 활동을 잇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공존의 장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권대학 교 대학원 문화학협동과정과 인권대학 교 총학생회와의 공동 주최로 성소수자를 둘러싼 인권적 과제를 나누며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리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구성

	21일(토)	22일(일)
10:30~12:00	세션1	연구발표
12:00~13:00	점심	
13:00~15:00	세션2	세션3
15:30~17:30	전체토론1	전체토론2

전체토론1. 진단 : 인권이 가져다준 성소수자 혐오 진단

전체토론2. 전망 : 혐오 발언, 혐오 범죄에 맞서는 제도적 장치와 운동

세션 (추가될 수 있음)

- 성소수자 인권과 인권 사회운동 및 연구자를 위한
- 성소수자 자살예방 활동을 위한 간담회
-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부모모임 좌담회 및 논문 발표
-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장담 토론회

- 레즈비안 페미니스트 활동 연구 그리고 연대
- 군복주의 기록과 분석 및 향후 전망
- 보수화되는 성 그리고 혐오에 대하여

연구발표

- 성소수자 성소수자 관련 부모 수용도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 등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 발표
- 사전 신청 접수 후 간담회 연구발표 제안에 반발

공감 요청

- 대강의실 (계단식, 200명 수용) 2곳, 중강의실 3곳, 소강의실 2곳

(2) 생활동계이나

내일 4주와 세미나 '성폭력'이 진행됩니다 "..."

(3) 커뮤니티

[보고] 다른 급한 사업이 없어서 지연되고 있어요, 개발 전까지는 해줄게요.

(4) 3월 문화제

5. OT/내터 성인지교육 일정

6. 확대간부수련회

[확간수 물레날 밤의 발제문]

2015.01.23. 김광 중순위원 모임 @확대간부수련회 관측소강조발악리조트

상황 보고

총학생회, 총학생회와 일부 단과대 학생회는 확대간부수련회 첫째 날 저녁부터 둘째 날 오전까지 있었던 술자리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해 해명을 받았습니.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술자리에서 다 함께 '병신', '게이상'을 외침.
장애인과 성소수자를 희화화하고 배제하는 표현.

2. 남학우끼리 러브샷을 시키고 "사귀어라! 결혼해! 입양해!" 등을 외침.
성소수자를 희화화하고 배제하는 표현.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강요. 러브샷을 당사자들이 동의하거나, 불쾌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언행.

3. 화장실 문을 잠그고 안에서 A(여)가 B(남)가 씻고 있었는데 만취한 B(남)가 노크도 없이 문고리를 마구 돌리고,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문열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름. 옆에 있던 C(남)가 B에게 "거기 여학우가 들어갔다"고 말해 상황이 일단락. A는 심한 공포감을 느낌. B, C는 누군지 알 수 없었으며 사과도 받지 못함.
언어적 폭력.

4. 술자리에서 A(남)가 B(여) 얼굴을 평가함.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대학 내에서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형성할 우려.
경우에 따라, 성적수치심을 줄 경우 성희롱이 될 수 있음.

5. 술게임 벌칙으로 '색시하게 요염하게 써리 윈' 할 것을 요구함. 당사자와 주변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 만약 벌칙 수행자에게 성적 언행을 강요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줄 경우 성폭력에 해당.
6. A(여)가 B(남)에게 "술직히 저 멍청지 않냐"고 해서 B가 "그렇다"고 했더니 A가 B의 목에 브로콜 함. A가 만취해서 말이 분명치 않았으나 자신이 브로콜 했다고 해서 B를 좋아한다는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말을 함. 이후 그 방에서 잠이 들었던 A는 잠에서 깨자 방을 청소하고 있던 C(남)의 뺨을 때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성추행).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성희롱). 물리적 폭력.
7. 생일인 A(여)에게 사발식을 시킴. B(남)에게 욕기사를 요청해 B가 대신 마심. 술 강권. 만약 주변인들이 특정 남성에게 여성을 위해 욕기사를 할 것을 물어가는 분위기였다면, 그 남성에 대한 '성 역할' 강요이자, 성차별적 언행이 될 수 있음.
8. 이 외에도 술 강권 사례 다수
9. 성폭력적 언행 다수 (예: 빠른96년생을 '빠구리'라고 부름)
10.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움. 불법. 화재 위험. 불쾌감을 느낀 학우가 다수. 화장실을 함께 이용하는 다른 학우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행동.

사실 위에서 언급된 문제 상황 중 대다수는 대학 내의 '주류적' 놀이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어, 별 다른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해당 문제 상황 중 대다수는 (수적소수가 아닌 사회적 비메이저의)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강제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즐거움' '주류문화'가 누군가에게는 무척이나 두렵고, 폭력적인 상황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는 각 단위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학연수에서의 활동은 결코 사적인 술자리가 아닙니다. 각 단위의 대표자가 모인 자리이기에 학연수는 분명히 공적인 자리입니다. 확대운영위원회 시간도, 식사 시간도, 활동이 시간도 모두 동등한 정도의 공적인 성격을 띠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명백히 사회적 소수자(예: 장애인,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화하는 언행과 성취행. 성폭력적, 폭력적 언행이 공적인 자리인 확대연무수련회에서 행해지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상황이 학연수 자리에서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표자들이 소속된 단위에서 이러한 문화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정 단위의 대표자 또는 집행부가 차별적, 배제적 언행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나, 특정 언행을 강권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공동체 생활에서 그 누가 이런 문제적 상황을 용기있게 저지할 수 있을까요. 곧 세대감을 잊어버릴 상황에서, 이러한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대학교 성폭력 전문 상담원과 치무 전문가 1인이 자문에서 공동적으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어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요구 자체가 공동체 문화를 공격하는 '폭력'이자 '존중의 부족'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별적인 언행을 하거나, 누군가 원하지 않은 놀이문화나 공동체를 강권하는 것은 결코 '존중'만이어 할 문화'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받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공격받은 느낌을 받거나, 공포 또는 불편함을 느낄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공동체 문화에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일일까요.

공동체 술자리에서는 '즐거움 문화'를 토인다'는 이유로 폭력적, 차별적 언행이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 지냈을 때 피해자에게 '분위기를 깨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 또한 폭력적입니다. 문제적인 상황에서 개인에게 '분위기를 깨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개인에게 문제적인 공동체 문화를 '용인'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방식은, '적응력'이나 '사회성', '차인' 등의 언어로 포장되어 공동체가 지니는 문제점을 개인의 적응 문제로 돌리는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이제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의 재발을 막을지 논쟁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각 단위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중앙운영위원회들이 어떠한 조치도, 상벌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것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책임을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당부 말씀

먼저, 이 자리에서 나온 폭력, 성폭력 사례들은 절대 최후로 유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차 피해란 피해자가 원치 않는 태도, 사건을 유보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가해자를 동조하고 두둔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본인과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입이 무겁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례들을 유보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차 가해나 피해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사실을 유보한 해당 중앙위원회를 찾아내서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3. 논의 사항

(1) 오늘(1/23) 확대연무수련회 활동이에 대한 조치

가장 먼저, 학연회에 가해자/피해자를 알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사례를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활동이에 대해서 약속 내지는 규칙을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차별적, 폭력적 언행 금지 - 모든 중/확연위원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할 의무
2. 술 또는 술게임을 강권하지 않을 것. 벌칙 수행이나 생일주 역시 강권하지 않을 것.
3. 성폭력, 폭력 사건의 2차 가해 금지
4. 위의 발 이외에도 술 마시지 않고 노는 발, 술게임을 하지 않고 노는 발 등을 마련

규칙을 정하고 공정한 이후에 활동이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표자 간 성폭력, 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

6번 사건에 대해서는 중순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생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가해자가 확대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의 자격을 물어야 한다고 성폭력 전문 상담원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근거에는, 이제까지 해당 단위의 공동체 문화에서 성폭력적 언행이 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앞으로 해당

공통체에서 비슷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 1) 확대운영위원회 가해자를 중앙위원회에 불러서 소명을 요구
- 2) 피해 당사자가 성폭력 전문 상담소를 통해 상담하고, 학내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사건 해결을 한 후에 과정 및 결과를 보고. (이 경우 가해자를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정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해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6번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인 B와 C의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학생회장·부회장, 중여학생회장·부회장, 해당 학운위원이 있는 단과대의 회장·부회장, 해당 학운위원(가해자)와 피해자(B, C)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과문과, 해당 행위가 잘못된 있음을 인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다.

[6차 중운위 총여 피드백]

술자리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확간수에서의 술/확운위원들, 소위 '인파' '주류'들의 술문화를 보고 세대기를 주로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인지 교육이 세대기들에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배들에게 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인지 교육을 해왔자 이미 한 줄게 형성된 주류-술자리 문화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 일러 우려됩니다.

오리대 중/확운위원들이 어떠한 배제들에 맞설지는 모습을 꼭 지켜봤습니다.

술자리 문화의 독락성과 배제성이 '문화기'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용인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화기를 용인하는 방식이 기존의 문제적인 술문화 밖에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중/확운위원들이 가진 경험의 한일성과 위치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여대를 포함한 몇몇 대학교는 세대 배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학교도 이미 있는 상황에서 술게임을 없애거나 술을 아예 먹지 않고 일단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공정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연회는 술문화에 있어서도 강연을 당한 사람이 '유도'에 있게 가질'하면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문화기'를 제외 없는 유도'에 있는 가질'은 불가능합니다.

총여학생회 부회장은 김현준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운위원에 가지화된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회장처럼 눈에 비지 않는 장애 가진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별신'이라는 표현을 일상에서도 술자리에서도 심지어 다같이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까지 발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 심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술문화가 재해석되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는 배제를 가여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대 공통의 일상성과 문화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할당 문제제기하는 주체는, 혹은 책임이나 처리의 귀결은 총여학생회가 되는 듯한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인배 감수성을 가지고 성폭력을 근절하고 좋은 공통체를 만드는 것은 총여의 몸이 아니라 학운위원들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 모두의 몫입니다.

술 먹고 일정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도 용인되어야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 미비했다고 하더라도요

전날 술을 먹고 중/확운위원이 안전교육에 오지 않은 것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술'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면책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리포트의 다른 무속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새벽 서너시가 넘어서까지 에드업을 비롯한 고상당가를 하는 모습은 비판자로서 기본적인 수준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논의]

(1) 성폭력 사건

- 오늘 논의: 중운위 차원으로 입장은 내고 자진사퇴 요구, 양해를 총과 함께
- 센터를 통해 사건 처리해서 가해자 교육 받게끔 하고 총회장단, 총여회장단, 해당 단과대 회장단,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곳에서 사과 받기를 요구했으나 고변해보기로 함
- 내일 오전 10시에 함께 살고 접수하러 가기로

(2) 오리, 세대 문화

- 단과대 양해
- 대표자들 따로 만나서 이야기

7. 연건계획 재검토

국제캠퍼스국 2015년 사업계획안

국정: 손정훈

8. 국 제제 소개

- 일부: 총여학생회 사업 중 국제캠퍼스 관련 사업을 일차적으로 담당합니다. 더불어, 국제캠퍼스 내 구상된 재경문 문제를 고민합니다.

- 현실의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몰랐는데 다익 읽어보니 국제캠퍼스 내 제 거수하는 세대기나 10인 집행위원이 최소 2~3명 (1거수사 담당, 2거수사 담당, 언기도 담당)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리 크로그맨이나 간직은 현재 집행위원이 가면 하지만 각들 통보를 무작위 <소통>에서 나온 임종기라 즉시 무작은 제인 실존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요.

사업명	사람기간에 건강하고 의미 있는 간식 만들기 '총여가 점심시간 버너쿠키 들고 간다'
담당국	국제캠퍼스국, 생활복지국, 협력국, 정책국, 미디어홍보국
학내 관계부서	3월 말4월 초, 5월 말6월 초: 간식 소문서 알아보기
진행내용	공간 고시기밀고시: 간식 만들기 - 간식 행사 전에 SNS를 통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 - 간식 나눠주는 것에 간단한 취지를 담아 간식의 의미를 홍보, 가평 여성영화제에서 받은 꿀을 나눠줄 땀 치마박에 꿀을 담고 지퍼백 끝에 용어를 붙여서 '이 간식은 어떠한 활동을 하는 여성영화제에서 나눠준 꿀입니다' 어쨌든 한 두 문장으로 의미를 간단히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할 듯,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대상	2015년 국제캠퍼스 거주 신입생
홍보방향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 트위터에 피자모 업로드 오프라인 홍보: 국제캠퍼스 기숙사에 붙임, 게시글 부착
진행내용	- 지퍼백 기간 전에 1기숙사와 2기숙사에서 간식 만들기 - 간식 행사 전에 SNS를 통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 - 간식 나눠주는 것에 간단한 취지를 담아 간식의 의미를 홍보, 가평 여성영화제에서 받은 꿀을 나눠줄 땀 치마박에 꿀을 담고 지퍼백 끝에 용어를 붙여서 '이 간식은 어떠한 활동을 하는 여성영화제에서 나눠준 꿀입니다' 어쨌든 한 두 문장으로 의미를 간단히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할 듯,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	간식 구입 비용
예산 문제점	총학생회 간식 사업과 중복하지 않도록 의미를 잘 살리기

사업명	국제캠퍼스 내 상담원 확충 요구
담당국	국제캠퍼스국, 협력국, 정책국, 생활복지국, 미디어홍보국
학내 관계부서	RC 교육원, 생활복지국
진행내용	3월 말: 국제캠퍼스 상담원 정리 및 입장 근거 마련 4월 초: 회장단이 정기 대학위원회에서 입장 발표
사업의도	요구 이후: 학교의 반응을 보며 추가적인 대책 수립 무엇, 어떤 시점에 내세웠던 국제캠퍼스 공약 중 하나를 실천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소외되기 쉬운 국제캠퍼스 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캠퍼스 내에서 상주하는 상담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상	2015년 국제캠퍼스 거주 신입생
홍보방향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요구와 업로드 및 공유화
진행내용	4월 정기 대학위원회에서 국제캠퍼스 내 상담원 확충 요구를 합니다
예산	없음
예산 문제점	- 신촌캠퍼스 생활복지센터에서도 전문 상담원 확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무척 낮음. 그러므로 국제캠퍼스 내 상담센터가 성폭력 상담 문제를 관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음.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숙사 내 회장실에 '성폭력 문제도 고민하고 있나요? 총여 or 다름과 같은 곳으로 연락하세요' 스티커라도 붙여야...

사업명	국제캠퍼스 내 문화사업 (3월5월9월)
담당국	국제캠퍼스국, 협력국, 정책국, 미디어홍보국
학내 관계부서	3월: 여성의 날 행사 5월: 대중적 모니터링?
진행내용	9월: 문화제 신촌캠퍼스와 함께 국제캠퍼스도 문화제를 진행하여 총여학생회를 홍보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
사업의도	2015년 국제캠퍼스 거주 신입생
대상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 트위터에 피자모 업로드 오프라인 홍보: 국제캠퍼스 기숙사에 붙임, 게시글 부착
홍보방향	일단 신촌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문화제의 컨셉트는 같게 하되, 세대가 대 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금 바뀌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미정
예산 문제점	(비율 관련은 아니지만) 정부 외의 노력력 신촌캠퍼스와의 물리적 거리 때문에 국제캠퍼스 문화제는 기획단이 별도로 있다면 문화제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듯

사업명	소통-총여학생회실 정비
담당국	국제캠퍼스국, 협력국, 미디어홍보국, 정책국
학내 관계부서	RC 교육원
진행내용	3월 말: 총여학생회실 정비 4월 초: 총여학생회실 정비
사업의도	총여학생회실 정비 총여학생회실 정비
대상	2015년 국제캠퍼스 거주 신입생
홍보방향	- '재밌는 활동지'인 피자 모에 총여학생회실이 있다는 존재감을 어필할만한 방법을 찾는 것. 무슨 발급? 아니면 복이나 국제캠퍼스 내에서 소규모 여성주의 학회나 다른 학회들이 세미나할 때 공간 대여? (너무 좁으려나...) 아니면 총여학생회실 성폭력 예방 가이드북 배포? (총여학생회실의 배부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보고! 1기숙사와 2기숙사 언더우드 거점 도서관 식탁에만 갖다놔도 될 것 같아요 성평등 자치 규약 같은 걸 벽에 붙여도 되나...) - RC 교육원에서 국제캠퍼스 총여학생회실 위치 묻는 메일 발송. 몇 대를 보내 - 스티커 준비 및 부착 - 소리향, 음은 아이디어인 한데,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양보하자고 ㅋㅋ 스티커를 더 붙여서 '성폭력 문제의 달' 신고는 총여학생회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있을 여섯쪽에 - 사업 내용 홍보하는 자보를 부착, 아래 사업과 연계해도 될 것 같네요. 근데 붙이는 것도 국경 캠퍼스가 인지도가 높고 따라 할 수 있고 - 문의가 많이 갈 것 같아요.
예산	배부대 3개
예산 문제점	(비율 관련은 아니지만) 정부 외의 노력력 배부대 관리 문제

사업명	요리교 배우는 자립자립 프로그램 (가만)
담당국	국제캠퍼스국, 협력국, 미디어홍보국, 생활복지국
학내 관계부서	RC 교육원 (생프 키친 (매일))
진행내용	12월: 프로그램 커리큘럼 작성 및 검토 3월-6월: 프로그램 진행 (35월: 2번, 46월: 1번)
사업의도	국제캠퍼스 생활 중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캠퍼스 내의 식생활은 학식 혹은 밥배우, 같은 배아 라운지의 파스타나 그라탕 정도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사내에 나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신촌캠퍼스와 다르게, 국제캠퍼스는 버스 타고 최소 30분은 나가야 사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제캠퍼스 내 신입생들의 식생활 습관이 단조롭고 영양불충분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예방하고, 간단한 요리를 배움으로써 스스로 자립·자활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여학생회 구성원 10명
대상	2015년 국제캠퍼스 거주 신입생
홍보방향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 트위터에 피자모 업로드 오프라인 홍보: 국제캠퍼스 기숙사에 붙임, 게시글 부착 / 오티 따 줌

진행내용	- 이리 혹은은 커리큘럼(어떤 요리를 할지-해당 요리의 의미나 자립·자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활 나눔이나 세미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맞춰 진행합니다. - 2주에 한 번씩 국제캠퍼스 방문(3월-5월 2번, 4월-6월 1번) - 8-12명 정도 선착순으로 끊어서 참가, 연금-전환 그런데 만약 여성주의 관수생 거르는 내용을 추가한다고 가정한다면, 뭔가 들으러 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좀 알기 위해서 면담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요리'를 배우는 건 좀 알고 볼수도 있거나 여성주의를 많이 싫어하는 분이 오거나...(물론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역할을 고려한다면...) - 의미 있는 농산물 사용 ex) 망고 농산물, 국제여성영화제 글 등 - 각 모임마다 진행하기 위한 생활 나눔 및 세미나 진행 - 모임 중 한 번은 국제캠퍼스 여성청소년노동자 분들을 초대해서 '연대+자립'의 의미로 프로그램 진행, '연대+자립'의 의미에 대한 설명, 가장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되는 무용(?)사-소계나 학생-노동자가 연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음'에 대한 의미를 노동자분들을 보며 다시금 설명한다거나, 근데 이것은 그 분들을 '어디나'로 대상화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어렵네요, 의미 전달과 진행방식을 조금 더 고민해볼게요. - 매번 프로그램 진행 후 음식 사진과 이야기한 내용(간단하게) 페이스북 업로드 -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부스를 세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식행사 비슷하게 나눠주는 것도? 재능 활동, 재능 기부의 느낌으로. - 1학기 고정멤버들이 2학기 때 국제캠퍼스에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어가도록 지원한다? (순 안다고 코 불가?) - 3월 8일 여성의 날 문화제 이후에 시작 - 단순히 만들고 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생활나눔과 세미나를 통해 여성주의적 관수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요리 달달 뿌리기, 홍보도 되고 경험은 방법이지만한데 끊어지면이 계속 사는 외전 곳에 있어 접근성이 조금 안 좋아요ㅠㅠ 또 요리를 들고 이동해서 나눠주거면 힘들 것 같아요, 머리카락 제각 같이 들고 가서 써온 것은 괜찮지만 밥 같은 거는 힘들 것 같아서요, 나눠주는 걸 생각하면 재료가 다 사야해서 예산도... 아쉽지만 역할 부족으로 참여하는 인원들 꺼려 먹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	• 참고할만한 모델 - 한자생터 '소통 가는 고양이' (facebook.com/sogo5090), 종대 슬로비 : 이 곳에서 활동하는 분을 초청해서 '요리'의 의미나 '공동체' '자립' '자활' '함께 살아감'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영미 오가니제이션요리 공동대표는 "카레 슬로비는 도시에서 느끼게 한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완전히 더 나은 삶을 함께 살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며 "서로 의지해 살기,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기, 끼니를 거르지 않기, 요리해준 사람에게 감사하기 등 아주 사소한 수도 있지만 삶의 기본들을 기억하고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산 문제점	- 총학생회 간식 사업과 똑같이 보이지 않도록 '자립' '자활' '세미나' '지속성' '연속성' 등으로 차별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밥 주는 총학생회의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도록 프로그램 성격을 잘 다듬어야 함. -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가 구성된 재생산이므로 그 목적에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 - 프로그램 커리큘럼과 방향을 명확하게 잡는 것도 중요

사업명	소통-소통하는 대자모 (가위)
담당국	국제캠퍼스국 협력국 정책국
예산	학내 관계부서
진행날짜	한 달에 한번 혹은 요리자활모임그림에 맞춰 2주에 1번? (그런데 후자는 역할이 안될 것 같네요)
사업의도	영어가 느거지는 총학생회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대상	2015년 국제캠퍼스 거주 신입생
홍보방향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 트위터에 자료 내용 업로드
진행내용	오프라인 홍보: 차분 홍보 - 작년 2학기에 있었던 나임원경 교수님의 상평등 리더십의 이해와 실천 수업에서 나왔던 방식을 참고해서 제안해봅니다. 국제캠퍼스 내 기숙사나 도서관에 '외출 거리'를 자보 크기 정도로 해서 붙여놓고 그 옆 종이를 하나 더 붙여서 그 종이를 위해 포스트잇을 여러 장 붙여서 외출거리를 읽고 쓴 생각들을 적게 하는 거예요. 뭔가 말로 전하지가 어렵는데...가끔 이런 경우는 성폭력일까요 아닐까요? 등의 내용으로 글을 쓰고 그걸 게시해요. 그리고 그 옆에 국제캠퍼스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거예요. 학생들이 다들고 같이 쓰는 거죠. '그런 성폭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포스트잇이 꼭 차면 수거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내용을 선정하고 피드백 내용을 페이스북이나 또 다른 자보를 그림에 한 번 더 업로드하는 거예요. 가령 '자면 외출 거리에서 한 학우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게시합니다. 답변 불러볼라'의 방식으로요. - 그 때 수업 시간에는 단발성으로 했는데도 꽤 호응이 좋았어요, 문제는 역할이 좀 투입되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고 있어요, 일단 적절한 컨텐츠 작성, 국제캠퍼스 부학 이후 수거, 피드백의 과정이 있었어요, 확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 사실 국제캠퍼스 내에서는 신촌캠퍼스와의 물리적 거리 때문에 총학생회실 찾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학생회의 존재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라도 붙여놓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는 노력을 해어 존재감이 각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구성된 재생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역할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캠퍼스가 어떤화한 상황에서는 더욱 더. - 몇 가지 떠오르는 추가적인 생각을 주자리주자리 적다면, '의견 북지신' 분 중을 추천하여 경험 상봉권을 드립니다! 나 '학내 다양한 공동체에서 겪었던 성폭력 혹은 불쾌했던 경험, 술자리 문화 불려불라를 적어주세요. 하소연 빌사!' 같은 것도 컴백시켜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런데 후자는 익명처리를 해준 소리할처럼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겠네요, 또 후자에서 모든 사례들은 예제가 제안한 9월 문화제 사례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그리고 작년 2학기 수업에서는 이 활동을 한 조에게 나임원경 교수님이 이 활동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년 1학기에 성립성 강의가 또 열릴텐데, 교수님과 잘 소통해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성립성 수강생과 노동자를 차하-자보를 붙여줄래요? • 확간수 이후 덧붙임: 확간수를 보며 느낀 것 중 하나가 새내기 때부터 어느 지점이 문제가 되는지 누군가 명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무지한 상태로 복학적인 언어와 행동들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다들고 같은 방법으로 기본적인 사실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	포스트잇, 장지 구입 비용
예산 문제점	(비용 관련은 아니지만) 일부 의견 노동력 앞서 문화사업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거리 때문에 자보를 원활하게 붙일 수 있을지, 열려볼.

사업명	RA 대상 성인지 교육 최종 일정
담당국	국제캠퍼스국 협력국 정책국
주요 관계부서	RC 교육팀
진행일차	1월 말2월 초: RC 교육원과 전략, 요청사항 준비 및 전달
사업의도	2월 말: 요구에 따라 최종 시행? 성인지 교육 확대 공학 중 국제캠퍼스 RA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을 확충함으로써 국제캠퍼스 내 성취율, 성취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
대상	2015년 국제캠퍼스 거주 외국인
출발점	본과의 중요: 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요구한 영문도 및 공문화
진행내용	- 교육의 시간이나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가나 교육의 내용에 참여가 가능? 이런 좀 무리할까요. 아무튼 RA를 대상으로 한 적합한 성인지 교육에 실시할 수 있도록. - 요청을 한 후, 2015년 1학기 때 성인지 교육을 받은 RA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2학기 때 다시 요청? - RA의 격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감안해서 성인지 교육 확충은 시간보다는 컨텐츠에 조금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요구할까요. 거행 진행 RA가 마주하는 상황에 대해서, 혹은 국제캠퍼스 내의 RA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نامه 전달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요. 성인지 교육 진행방식도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토론과 수업을 좀 감사도 일부감사님 요청
예산	없음
예산 모자람	상당히 최종 요구와 미처가지못 무관하게 결할 가능성 있음

2015년 제 26대 총학생회 <다시 봄> 미디어홍보국 사업계획

작성자: 이장민

2015년 1월 19일

미디어홍보국 전반

구성원: 손미애, 이장민, 임진호, 손정훈

현 상황: 학우들의 인식도나 관심에 다른 학생회 차지기구에 비해 낮음, 존재론, 위기론 속에서 정당성 획득 필요

일차적 목표: 총학생회에서 열리는 각종 사업과 필요성을 학우들에게 알리기 총여의 인식도도 신뢰도를 높임

궁극적 목표: 학생수학적 감수성을 제고함으로써 총여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넓게 형성

업무:

마케팅 기획

홍보 전략 기획 (이미지, 수단, 이벤트 등)

홍보 이벤트 기획 → 드 여성주의 토막지식 이벤트 완료

컨텐츠 및 홍보물 제작

각 사업별로 홍보가 필요한 경우를 파악

사진 및 영상 담당

홍보물 제작

컨텐츠 제작 (가이드북 등) → 4. 가이드북 완료

최주 디자인이나 연결

SNS(페이스북, 트위터), 홈페이지 관리

보고 업데이트

분회 댓글 및 SNS로 오는 연락을 제하고 답변

가이드북

여성주의 토막지식 이벤트

1. 마케팅 기획

개요

기존에 부정적인 편견을 벗고 학우들에게 친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 총여를 널리 인지하게끔 하기 위한 마케팅 기획

진행

페이스북 좋아요 이벤트:

좋아요를 누르면 상품을 주는 이벤트

2000개의 좋아요를 찍어보자! (물론 크게 가져보아요...)

•협력: 재무국

여성주의 토막지식 이벤트: → 드 여성주의 토막지식 이벤트 완료

토막지식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SNS에 올림

여성주의 개념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

(퀴즈를 맞추면 추첨해서 상품을 줄 수도 있음)

•협력: 재무국, 정책국

•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법 연구(?)

페이스북 마케팅, 트위터 마케팅 관련 자료 공부

로그 및 아이디어 디자인 확정

로그, 컬러, 사운드 등

페이스북/트위터의 프로필사진/헤더사진

게티터 사용 (?)

일정

로그 및 아이디어 디자인 확정: 2월 첫째주

페이스북 및 트위터의 프로필사진/헤더사진: 2월 첫째주

페이스북 좋아요 이벤트: 2월 첫째주~둘째주 중에 한 번 (학기 중 두 번 정도 더 진행할 예정)

여성주의 토막지식 이벤트: 2월 첫째주~셋째주 컨텐츠 정리, 3월 첫째주부터 개제 시작 → 드

여성주의 토막지식 이벤트 완료

페이스북/트위터 마케팅 연구: 3월 첫째주~

게티터 제작: 3월 첫째주까지 (개강 전)

2. 컨텐츠 및 홍보물 제작

개요

컨텐츠 (포스터/비라시/플라카드/별자도/카드대) 제작

사업별로 연계하여 사진 및 영상 담당

최주 디자인이나 연결

진행

각 사업별로 필요한 홍보 제작

홍보물 제작:

지속적으로 사용할 형식 논의 (+형식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

국한 한 사용법 숙지

행사마다 사진 및 영상 담기

온라인 홍보의 경우, 포스팅 담당

오프라인 홍보의 경우, 인쇄 업체와 연결

최주 디자이너와 연결

*협력: 회계담당

컨텐츠 제작 (가이드북) → 자세한 진행, 일정 및 담당은 '4. 가이드북' 참조

*협력: 설계국

일정

지속적으로 사용할 홍보물 발주 확정: 2월 둘째주

국한 등 사용법 숙지: 2월 셋째주~3월 첫째주

담당

컨텐츠 제작 목록 체크:

사진 및 영상 담당:

컨텐츠 제작:

온라인 포스팅: → 그 온라인 매체 관리 완료

인쇄 업체와 연결:

최주 디자이너와 연결:

컨텐츠 제작(가이드북): 미래, 살인, 예지

그 온라인 매체 관리

개요

SNS(페이스북, 트위터)와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컨텐츠를 관리하고 활성화

진행

페이스북/트위터:

올라가야 할 게시글 확인

사업 공유

페이스북: 간 글 / 사진 / 카드섹

트위터: 요약글 / 사진

공유는 24시간 이내에 원칙으로...

다른 페이지 좋아요 / 팔로잉 꾸준히...

메시지 및 댓글 확인하고 공유했을 때 답변

생일 8~6시, 그 시간 이내로 반응, 주말에 온 문의는 다음주 필요할 때 답장

홈페이지

홈페이지 디자이너와 연락 → (*협력: 회계)

홈페이지 관리

일정

—

담당

페이스북

트위터

홈페이지

*4. 가이드북

개요

홍보캠페인의 간략한 소개, 설명을 하지않고, 여성주의 관련 토막지식, 각종 유용한 정보 등을 담은 수첩

특히 새내기를 대상으로 하여, 2월 오프 및 새터해 집중적으로 배포될 예정

진행

스폰 받기 (*협력: 재무국)

텍스트 정리 (오프해 같이 배포될 성명등센터의 책자와 되도록 겹치지 않는 내용 위주로)

디자인 완성

인쇄 제작 및 배포

일정

텍스트 정리 및 디자인 완성: 2월 첫째주

인쇄 및 집: 2월 6일까지

배포

담당

텍스트: 미래, 예지(*협력국 협력)

디자인 및 인쇄: 살인

*5. 여성주의 토막지식 이벤트

개요

여성주의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동시에 페이스북 페이지 홍보 효과도 노리기 위한 이벤트

진행

달고자 하는 내용 논의

텍스트 정리 (가능하면 6월까지 올릴 수 있는 내용 확보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올릴까?

그냥 텍스트만 달은 카드섹? 캐릭터가 있거나? 퀴즈?

예수? 작주?

포스팅

일정

달고자 하는 내용 논의: 2월 둘째주

텍스트 정리: 2월 셋째주~넷째주

포스팅: 3월 첫째주부터

정책국 사업기획단

국장 : 예지

국원 : 진호

- * 카이드북(성평등 가치 교육용 책) 및 정책국 책상 및 책상 카이드(카이드)는 미디어홍보국으로!
* 성소수자 피해는 퀴어문화축제, LGBT 인권모임 연대사업으로 대해.

사업명	성평등센터 상담원 학습		
담당국	정책국	협력부서	성평등센터
학내 관계부서	같이불개요		
진행날짜	4월 1주 정기대행업 - 이후 조율		
사업의도	-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처해 성평등센터의 전문상담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해결 - 혹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관심환기 - 학내 성폭력 사건에 상담원이 있다는 사실 가시화		
대상	학교에 요구		
홍보방향	- 성평등센터의 현상을 알리고 요구했으나 실패했다는 점 강조 - 전문인력의 중요성 강조 - 공문으로 요구		
진행내용	- 이후 이슈화 (상황 정리 및 발제, 협력요청) (근거자료: 타학교 상담원수와 비교, 상담원 과중한 업무 및 환경의 열악한 강조, 성평등센터 직원 인터뷰 등)		
예산	-		
예산문제점	소통 불가, 예측된 실패, 학우들의 냉담한 반응		
사업명	성평등세미나		
담당국	정책국	협력국	다현, 미디어홍보국, 국제캠퍼스국
학내 관계부서	-		
진행날짜	1월, 7-8월(신촌캠)		
사업의도	학내 성인지 감수성 향상 총여학생회 접근성 향상 총여 재학생		
대상	새내기 및 재학생		
홍보방향	대중적이고 밀알발랄하고 다가가기 쉬운 이미지 학내 아웃사이더에도 접근하기 쉬운 이미지 온라인 홍보 주력 (SNS, YSCBC)		
진행내용	1. 너와나의연결고리 (생각) 2. 총여학생회 여름 세미나 (가) * 연결고리 2탄 같은 느낌으로. 이번에 했던 것을 바탕으로 시간의 여유를 두고 콘텐츠를 미리 만들고, 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간		

	신청을 할때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컨셉의 세미나 형식도 좋았던 것 같고, 끝나고 뒤돌아도 하면서 전해지는 것에도 주력합니다! 6월 2주 - 6월 4주 : 콘텐츠 구성 및 자료집 확정 7월 1주 - 7월 2주 : 홍보 7월 4주 - 8월 3주 : 진행 3. 학기 중 세미나? (국캠은?) 22-26만원 15명 기준 리딩인쇄 : 5,000 x 20부 = 100,000 (cf. 분량이 많으면 7,000 x 20부 = 140,000) 다과 : 30,000 x 4회 = 120,000		
예산	예산문제점 : 참여율 저조 (혹은 참여율 목표) 사업명 : 3월 문화제 - 여성익날		
담당국	정책국	협력국	미디어홍보국 새무국 국제캠퍼스국
학내 관계부서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 (영화 상영을 한다면) - 여성 단체 (특강을 한다면) - 2월 : 기획 및 준비 - 3월 1주 : 홍보 (SNS 등) - 3/10(화) : 국캠 문화제 진행 - 3/11(수) - 3/12(목) : 신촌캠 문화제 진행		
사업의도	- 학내에 여성의 날의 의미를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총여학생회를 알리고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엮는다.		
대상	- 2만 연세인		
홍보방향	- SNS로 먹음 것 혹은 기념품을 부각시켜서 행사하는 장소에 들을 수 있게 유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여성익날의 의미도 함께 홍보하면 좋겠어요.		
진행내용	* 핵심 메시지 : 여기 차별이 있다! (그래서 총여가 있다). * '여성익날' 기념. * 날 행사 : 국캠 먼지도 많, 신촌캠 백암로에 부스 설치 새년 행사 : 여성영화상영, 성평등한 연애특강 등 <날 행사 기획> 고나 1. 햇소리격파대회 설치물적 인형을 치른 풍미를 격파한(?)에 붙이고 격파합니다. 학우들이 이것에 참여하면 먹을 것이나 기념품을 줍니다. (햇소리 예시 : '나는 여자가 화장 좀 하고 다녀' '남자새끼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 등) 예시문구를 제공하지만, 자기가 격파하고 싶은 문구를 직접 쓸 수도 있게 합니다.		

	코너 2. 여성 인권 자원전		
	- 역사 속의 여성 인권 운동 현장 혹은 현대 사회의 정면 언론투쟁서 관찰하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도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합니다. 하려면 알뜰살뜰 예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코너 3. 캠퍼스 내 차별 찾기 + 취업시장 내 차별 포착 (장문 피드백 반영)		
	- 사진에 이 기획을 홍보하고 익명으로 사례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 아닌 선에서 전제합니다.		
예산	- 마킹 (기획에 따라 다름)		
예산문제점	- 참여저조		
사업명	5월 문화제 - 대동제		
담당국	정책국	협력국	
학내 관계부서			
진행날짜			
사업의도			
대상			
홍보방향			
진행내용			
예산			
예산문제점			
사업명	9월 문화제		
담당국	정책국	협력국	재무국 미디어홍보국 국제캠퍼스국
학내 관계부서			
진행날짜	- 5월 3주 - 6월 2주 : 기획단 모집 - 7월 3주 - 7월 4주 : 기획단 세미나 - 7월 4주 - 8월 4주 (계절이후 5주) : 기획단 업무		
사업의도	- 9월 초 : 문화제 진행 - 학내 여성주의적 감수성 제고 - 총여 재생산		
대상	- 학내 여성주의자 및 관심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형성 - 기획단 및 연세인들		
홍보방향	- 기획단 모집 : 발학 때 총여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원가한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점 부각		
진행내용	기획단을 모집하여 진행하고, 이들이 총여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획 위주로 만들고 서로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문화제 기간으로 대대적으로 영화제도 진행하고 특강도 진행하고 백암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연, 전시도 진행하여 연세 페미니즘 축제 기간(?)을 설립합니다. (이름은 페미니즘이 아니어도...) 연세, 색스 컨셉을 이 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 백암로에서 보이는 라디오처럼 팻케스트 진행. 공연 (페미니스트 가수 지원, 이반지하, 글렌디 등), 부스 (대안생리대 만들기,		



감사합니다!

	생리주기알피 만들기, 음료 판매 등)		
	* 기획단을 모집하여 컨셉부터 함께 기획할 예정! 달시 시름, 사회이슈, 총여 등을 고려하여 컨셉스 결정.		
예산	예산 불가		
예산문제점	기획단 이탈 (기획단원, 명찰 등 소속감 고취, 맛있는 거 많이 주기...로 보임)		
사업명	아카라카, 연고전 모니터링		
담당국	정책국	협력국	미디어홍보국
학내 관계부서	총학생회?		
진행날짜	3월 2주 - 3월 4주 : 모니터링, 자료수집 4월 : 내부세미나, 별제 및 미팅, 각 단위와 소통 5월 : 아카라카 (모니터링 계속 진행) 9월 : 연고전 (모니터링 진행)		
사업의도	- 학내 폭력적 문화 개선		
대상	- 선정화된 연고전에 '관한'(연고전 자체가 아닌) 문제제기의 출발점 전체 연세인, 특히 아카라카 연고전의 폭력적 문화를 주도하는 안배이디들.		
홍보방향	- 홍보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진행내용	아카라카, 연고전을 모니터링 한 후 개선이 필요한 요소를 발견하고 우리 내부에서 그 파지노선에 관한 합의를 한 후 관계단위에 개선 요청		
예산			
예산문제점	- 발식을 굉장히 잘 설정하지 않으면 규탄의 대상이 될 것. - 학우들의 강한 반발, 동문 선배 교수님들의 반발 - 총여 폐지론 강화		
사업명	- 여가부 같은 모지서닝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주입해야 할까요? - '연고전은 관습지만' 폭력적인 문화가 문제, 라는 식이 되면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없어서 이도저도 아닌 규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연고전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고'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		
담당국	정책국	협력국	희정단
학내 관계부서	총학생회, 장애인권위원회, 게르니키		
진행날짜	2학기 (여정)		
사업의도	장애학우 이동권 개선, 인권 보장 공약 이행 "소수자 정치" 기초 부각		
대상	학교 본부		
홍보방향	활동보고서업 공유판		
진행내용	장애학우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총학생회와 연계하여 학교에 요구한 제출		
예산	알 수 없음		
예산문제점	요구한 목상		
사업명	귀어문화축제 부스		

담당국	정책국	협력국	
협력단위	KSCRC(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진행날짜	5월 대동제 이후 : 부스 콘텐츠 준비, 메시지 구체화, 부스 참여 제안서 발송, 서울시장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서명운동 참여 6월 초 : 퀴어문화축제 진행 - 자별없는 캠퍼스		
사업의도	- 오직 여학생만을 위한 총여가 아닌 '소수자 정치' 부각 - 성소수자 인권 네트워크에 힘을 실어주고 학내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함양		
대상	- 연세학우 및 시민		
홍보방향	- 성소수자도 평등한 연세 - etc...		
진행내용	구체화해줄게요		
예산			
예산문제점	부스에서 알릴 수 있음 (경쟁력이 있어야 할텐데...)		
사업명	LGBT 인권포럼		
협력단위	무지개행동?	협력국	
학내 관계부서	- 과학관? 공간대관부서?		
진행날짜	- 2월 / 3월 중 : 자료조사 및 대응 준비 - 3/14-15 or 3/21-22 (토-일) 오전 11시-오후 6시 : LGBT 인권포럼		
사업의도	- 학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행사가 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LGBT 인권포럼이라는 콘텐츠를 연세인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 자별없는 캠퍼스, 성소수자 인권 보장		
대상	- 연세학우들, 다른 시민들		
홍보방향			
진행내용	- LGBT 인권포럼 속에 총여학생회가 연대단위로 들어가 연세대학교의 강의실을 대관합니다. 학교 측의 돌발대응이 예상되므로 대책을 수립합니다. 1. 강의실 청거 매뉴얼? 작성 (일단은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등...) 2. 대자보 및 설명서 3. 공간대관 규정 조사 4. LGBT 인권포럼이 무산되지 않도록 근처 다른 강의실/강소 조사해두기 5. 홍보시 주의할 점 조사 등		
예산			
예산문제점	- 강의실 대관 불허/취소		
사업명	학내 여성주의 소모임/학회 지원		
담당국	정책국	협력국	재무국
학내 관계부서	미디어홍보국		
진행날짜	- 3월 문화제 이후 : SNS 홍보		

사업의도	- 4월 : 심사 및 지원 - 학내 여성주의 토양 마련 -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학우들의 네트워크
대상	페미니스트 in 연세
홍보방향	- 여성주의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모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느낌을 주는 게 어떨까요. 어쨌든 페미니즘을 공부해보라는 독려가 필요한 것이니까. - 연세대학교의 페미니즘을 고민하는 모임들에 공간이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들간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네트워킹을 시도하여 그 외연을 확장하거나 서로 힘을 보탬 수 있게 독려합니다. - 지금까지 해온 활동이나 일년동안 예정된 사업의 기획안을 심사하여 지원금을 제공한 후 총여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필수적인 미팅을 진행합니다. - 혹은 지원금을 제공하기 어렵다면 공간을 제공합니다. (총여실 대여 or 강의실 대여 대관, 1 학내단체가 등록되기 전까지 강의실 대관어 어려운 시스템)
진행내용	• 총여실 대여 논의 필요 • 강의실 대여 대관 논의 필요 • 지원금 액수 논의 필요 • 심사기준? • 지원자격? (다른 학생회의 허용 모임 등이 받지 않도록, 사회과학 토론 모임이나 생태주의 모임 등도 허용할 것인지, 모임의 연세대학교 재학생 비율, 사업의 이후 지속가능성 등)
예산	-
예산문제점	- 여성주의 모임 없음 (문화대 앨리스 뿐) - 가짜 단체, 책정하지 않은 모임에 지원 - 지원금 범위 - "페미니즘 모임" 경계 설정의 어려움 * 일년차임계획 수립은 바로 사업으로 넘어갔었고, 각 국의 강령을 최종안정되어 정리해서 채택한 뒤 총여실에 붙이겠습니다.

8. 생리대

간호가 학생회 전파해서 여학우 숫자 문의해보기로.
문의 중.. 부탁해요..^^

9. 2015년 제52대 총학생회 요구 철회안 (가안)

*학우회에서 시간 부족으로 각 단원에서 피드백하는 식으로 되었습니.

발신 : 연세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수신 : 연세대학교 총장

학생은 연세대학교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는 연세대학교가 신진적인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의 연세대학교는 등록금, 주거문제, 취업문제로 힘들어하는 대학생의 현실, 수익과 효율성만을 교육 정책의 기조로 내세

주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일삼는 학교 당국의 독단으로 가득 차있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교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총장에게 연세인의 삶과 교육권을 개선하여 연세대학교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학교 본부는 교육 재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율을 반드시 낮추고 영복등록금과 실생활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생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2. 기존의 재수강 3회 제한 제도는 교육의 목적을 호도하고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학생들이 학업성취에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3. 역으로 제1호 프로젝트, 심정영관, 제1공학관 건축, 과학관 증축 등으로 학교의 공간이 늘어난다. 학교본부는 공간 구성에 있어서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일회성 있는 회의를 조속히 마련하라.

4. 총장선출에 민주적으로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총장분책위원회, 총장인준투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라

5. 학교본부는 학생들이 학교 전체의 의사결정에 다른 구성원과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6. 학교본부는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자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 신축 공간에서 학생들의 학업, 동아리, 학회 활동 등의 자치활동이 잘라질 수 있도록 타입 제어 및 방식이 아닌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라

- 역발문서드론, 금요일포름(전설예명), 각 단과대의 강의실 등의 공간을 학부단체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보장하라

7. 학교본부는 학생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월한 기숙사를 비롯하여 앞으로 신축될 기숙사의 기숙사비의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숙사비를 기존의 무정확한 기준으로 낮추라

8. 학교 안에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학적 상의 졸업하기가 무수할게 때문에 졸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등록금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학교 본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9. 학교 안의 학생식당의 목표는 이른 장음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담없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학교 본부는 연세대학교 인근, 국제캠퍼스 안 학생식당의 밥값을 인하하여 학생들의 생활이 부담을 줄여라

10. 국제캠퍼스는 부족한 기반 시설, 불안정한 RC교육, 신촌캠퍼스와의 거리 등의 문제로 학생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학교본부는 국제캠퍼스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라

-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생간 교류와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별도의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신촌-국제 캠퍼스 셔틀버스를 확충하라.

- 국제캠퍼스에서 발생해왔던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센터를 신설하고 성폭력전문상담원을 확충하라

- RC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RA에 대한 투자를 개선하고 RC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11. 학교 본부는 학내의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캠퍼스를 보장하라.

- 신촌-국제 캠퍼스 건물 도로 등에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도 신촌-국제 캠퍼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라

- 학교 본부는 교수, 교직원, 노동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의 협력이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캠퍼스를 구성하라

10. 대학생 여성주의와 연대(가) 모임

11. 공동대책위원회 연대 논의

【첨부자료】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수은 제52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발심: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문)

1.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은 남자가 무계획적 뜨거웠던 선거를 마치고 새롭게 출범한 제52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당면한 숙제입니다. 아직 선거를 마치지 못한 당회에는 일정한 회로와 격려를 전하고 싶습니다.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반사를 드립니다.

연세 학생회 선거의 규모와 제정된 보아도 우리 연세대학교의 학생사, 나아가 연세대학교는 일로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신촌캠퍼스인 비서리도 약 33만 원의 부지 위에서 학생들과 대학원생들 함께 3만여 명의 학생들이 4만여 명의 교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연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합니다. 이렇게 많은 구성원을 살리는 하나의 제 역할을 못한다면 학교를 존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각자 역할과 소명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연세대학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 공부하고, 일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구성원들의 처지가 모두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것을 나눠 갖는다는 것을 먼저 말하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각자 학적 위치에 놓인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400여 명이 넘는 비정규직(미취/보인/주거관리)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른 새벽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여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일해 줍니다. 이들도 우리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혹은 실용직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임을 물론입니다.

아래의 글은 이번 제52대 총학생회, 제20대 총학생회의 선거의 공동공약 중 일부입니다.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공약 제안 :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하나, 총학생회와 총학생회는 오늘날 한국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학생사회 역시 도와줄 수 있는 시안임을 인식하고, 학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총학생회와 총학생회는 국제 캠퍼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심대투자를 통해 총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열렬하게 인식하고, 비정규직으로서 차별받는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총학생회와 총학생회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가 학생, 교수, 교직원과 같이 연세대학교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대우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학내 노동자들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의료, 시설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1997년 최현희가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계속 제직학을 해야 되거나, 근로시간이 길거나, 고용주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이 정규직 노동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연세대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그 중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다시 말해 연세대학교와 학생제약을 맺은 총역업체의 소속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 일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연세대학교의 직원이 아닙니다. 이들은 **매년 있는 총역업체 재계약 속에서 연세까지 입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실질적 고용주인 연세대학교가 자신의 고용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처지가 일반적으로 열악하고, 총역업체들은 자주 회로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임금, 수당, 근로시간, 휴일, 휴게 공간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은 물론, 그 근로조건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금과 수당을 책정하거나, 휴식시간에 근로를 시키거나, 주5일제를 무시하거나, 작업복을 주지 않거나...' 총역업체들이 이런 불법을 저질러도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심지어 총역업체 관리자들이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성추행 등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7년 전 2008년,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병원지부 연세대분회, 이하 연세대분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되찾아 실현한 것입니다. 국제캠퍼스의 시설관리 노동자들 역시 2013년 노동조합(한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연세대분회,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일반노조)을 결성했습니다. 헌법은 우리의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 즉 단결권(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단체교섭권(근로조건에 대해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으로서 피사할 협상할 권리), 단체행동권(근로조건에 개입을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주에게 대항할 권리)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국제캠퍼스 기숙사를 관리하는 총역업체 세인텍스는 22명의 노동자들의 해고를 통보해 왔습니다. 총역업체를 대체하려는 과정에서 학교 본부에서 총역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변화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에 노동자들의 인권을 명시하도록 한 기존의 입찰 방식과는 달리, 학교 본부가 총역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총액만을 명시하고 '그 안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총역업체의 책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흔들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안을 제시한 총역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청소하고 치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거기에 나일게 된 노동자들의 싸움은 한 달 남게 계속되고 있으며, 청소/정리가 연세대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임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 역시 이 싸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쪽 총역업체들이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고, 조합원들도 대부분 교행에 입문 무당이 과감하여 노동조합 활동까지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노동조합은 지켜져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의 작은 힘도 함께 했습니다.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름이 길었지만 따져보면 이러한 일은 아닙니다. 줄여서 '연세대 공대위'는 연세대학교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학생시위의 주성당 매년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지난 7년 간, 일석이之功하고 일석이지 시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맞서 싸워왔습니다.

1년에 한 번 학생회 선거가 진행되는 것처럼 공대위 역시 매년 세통제 구성입니다. 총해서 8기를 맞이하는 공대위는 현재 총학생회, 연세의료대학원 학생회, 노수선 생활도서관, 연세대학생병원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 다들에서 알아가는 길, 달 등의 단위가 모여 운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공대위에서는 그간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쟁을 함께해왔던 기존의 활동에 더해 학생사회에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관련한 의제를 환류하고 실제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만나 소통하면서 인성할 같은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제직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내 비정규 노동 문제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에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우리에게 제정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면서도 그 일을 실행해줄 시설관리 노동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원가 절감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절당한 처우를 받지 못할 때, 청소 노동자 한 명이 두 송을 청소하고 열 명 노동자는 겨우 목숨을 겨우 버려야 할 때 우리의 캠퍼스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일 수 없습니다. 최근 상황에서도 "총학군보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취약한 상태에 놓인 총역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등, 비정규 노동 문제에 사회적으로도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개인적 갈등은 너무나 미미하긴 합니다.

공동체적 구성원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그 공동체의 의식과 문화가 결정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우리 학생, 교수, 시간강사, 정규직 직원 등과 마찬가지로 연세대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문화는 결국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총학군 문제, 학내 민주주의 문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

지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공감한다면, 누군가의 생리적인 요구들이 받아들여지고, 우리를 더 어려움에도 나눌 수 있고, 우리 공동체도 점차 따뜻해갈 것입니다.

이번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할지 않는 학생회를 꾸려나가기 싫은 무학으로서, 한 해 동안 하시는 일 모두 잘 치기를 기원합니다.

2. 2015년 공대위 계획(가)

1~2월 : 출범 준비, 국제캠퍼스 구조조정 문제 반대, 신입생 대입 인원활동

3월 : 총회, 국제캠퍼스 단결회

5월 :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대동제 주일

9월 : 소풍(야유회)

11~12월 : 집단교섭 반대

3. 요청 사항

각 단에서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연세대분회' 가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단과대학별위원회에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소개하는 명세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중적인' '활동적인' 이미지의 색상 중에서 기존과 비슷한 계열로 추임



분홍 및 자주 계열 제외,
기존과 너무 다른 색상 제외

최종 3가지 색상

다시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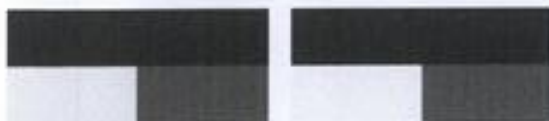
최종

다시봄 다시봄

B안



봄의 느낌, 경쾌한 느낌의
주황색과 초록색 계열.
촌스러워보이는 단점.



따뜻한 계열만 있는 듯해서..
신뢰감 줄 수 있는 색상.
차가워보이는 단점.



명도 높고 눈에 잘 띄는 색상,
가벼워보이는 단점.



앞새 모양을 그대로 따와서,
다시 보면 나비의 모양.
모양은 좀 더 다듬을 것입니다.
심오해서 뜻을 알아채기 어려운 단점.



앞새인데 거울처럼...
거울처럼 동시에 새싹처럼 보이게 하는 게 관건.
거울=다시봄 을 연상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새싹? 다시 보면 꽃봉오리?
일단 모양이 좀 복잡하고,
여성=꽃이라는 클리셰를 다시 한 번 연상하는 우려

